

| 13일 Market Index |           |             |         |
|------------------|-----------|-------------|---------|
| ↑ 코스피            | 7844.01   | ↓ 코스닥       | 1176.93 |
|                  | (+200.86) |             | (-2.36) |
| ↑ 금리 (연이자율)      | 3.680     | ↓ 환율 (원/달러) | 1487.80 |
|                  | (+0.006)  |             | (-2.10) |

신라면 40주년  
농심, 2030년 매출  
7.3조 목표  
04



## 비메모리 흑자 예고... 노사갈등·中 추격 '변수'

## 청년고용률 43.7% 24개월 연속 하락

### 삼성전자 파운드리 흑자 앞당겨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흑자 전환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노사 갈등에 따른 생산 불확실성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중국 SMIC 등 현지 파운드리 업체들의 추격도 거세지면서 삼성전자가 메모리 초호황을 비메모리 턴어라운드 연결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증권가는 당초 삼성전자 비메모리사업부의 흑자 전환 시점을 올해 하반기로 예상했으나, 최근 들어 2분기 조기 흑자 가능성에 무게를 실는 분위기다. <관련기사 3면>

키움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2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100조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며 "파운드리 및 시스템LSI 부문은 HBM4 베이스다이와 엑시노스2600 생산 등에 힘입어 소폭의 영업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만 삼성전자의 파업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들 사이에서는 삼성전자의 공급 안정성 여부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입단협사안이 삼성전자의 대외 신뢰도는 물론 AI 반도체 공급 전략 전반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 4월 23일 평택 집회 당일 야간 시간대 메모리 공장들의 생산 실적이 18.4% 감소하고 파운드리는 58.1% 줄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이 진행될 경우 생산라인 가동 중단에 따른 생산 차질은 물론 설비 손실과 복구 비용 등을 합쳐 30조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삼성전자의 파업으로 생산과



이재명 대통령, LNG화물선 시찰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를 방문해 LNG선 화물창을 시찰하며 정기선 HD현대 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증권가, 2분기 삼전 영업익 상향  
글로벌 빅테크 '공급 안정성' 집중  
파업시 물량 TSMC 분산 가능성  
中 SMIC, 웨이퍼 제조시설 강화

인 차질이 생길 경우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들이 공급 안정성을 고려해 일부 물량을 대만 TSMC로 분산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다만 반도체 전문매체 디지타임스는 최근 국내 언론 보도를 인용해 "삼성전자 노사 갈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실제 생산 차질이 노조 주장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도체 생산라인 특성상 웨이퍼 이송과 주요 공정 상당 부분이 자동화돼 있고 교대 운영 체계도

구축돼 있어, 단기 파업이 곧바로 대규모 생산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파운드리 업체의 거센 추격도 삼성전자 비메모리부문 반등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최대 파운드리업체인 SMIC는 규제 당국으로부터 406억위안(한화 약8조9360억원) 규모 자산 인수 승인을 받으며 수익성이 높은 웨이퍼 제조 시설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등 본격 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조사업체 키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TSMC가 72%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으며 삼성전자는 7%로 2위를 기록했다. 이어 중국 SMIC가 5% 점유율로 삼성전자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반도체 생산라인은 자동화 비중이 높고 최소 운영 인력이 유지되는 구조여서 일반적으로 단기 파업이 곧바로 생산 중단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다만 노조가 최소 운영 인력까지 파업에 동참시키며 생산라인 전면 중단을 목표로 할 경우, 당시 투입된 웨이퍼나 재공품 상당수가 정상 출하가 어려워질 수 있어 파업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파운드리 사업은 단순한 생산 차질보다 납기 안정성과 고객 신뢰가 흔들리는 것이 더 치명적일 수 있다"며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경쟁사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 "물가 대응이 먼저"... 금리인하 가능성 갈수록 하향

### 신성한 금통위원, 점도표 상향 무게 "전쟁 변수, 인하는의 부담스러워"

오는 28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점도표 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 금통위 내 대표적인 비둘기파(통화 완화정책 선호)로 분류됐던 신성한 금통위원(사진)까지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다. 중동발 고유가로 물가 상방 압력이 커진 반면 반도체 수출 호조로 성장 하방 우려는 줄어 들면서, 한은의 금리 섰법도 인하보다 물가 대응에 무게중심이 옮겨지고 있다.

신 위원은 지난 11일 한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은 전쟁 변수로 인하를 논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은 고유가에 따른 물가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성장과 물가가 상충할 경우 물가에 무게를 뒀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신 위원의 발언이 주목되는 이유는 그가 그동안 금통위 내에서 완화적 성향으로 분류돼 왔기 때문이다. 신 위원은 재임 기간 여러 차례 금리 인하 소수의 견을 내면서 시장에서 통화 완화 선호 인사로 평가돼 왔다. 그런 신 위원까지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금통위 내부의 논의 초점도 달라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이번 발언이 곧바로 신 위원의 향후 표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신 위원은 12일 임기가 만료됐다. 그럼에도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분류됐던 인사가 임기 종료 직전 물가 우려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한은 안팎의 정책 기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으로 받아들여진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던진 메시지도 같은 흐름이다. 유 부총재는 한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중동발 충격 이후 성장세는

예상보다 견조한 반면 물가 상방 압력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금리 인하를 멈추고 금리 인상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유 부총재는 2월 전망 당시 올해 성장률을 2.0%, 물가상승률을 2.2%로 봤지만, 이후 상황을 보면 성장률은 2.0%보다 크게 낮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물가는 2.2%보다 높아질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5월 금통위까지 이런 흐름이 확인될 경우 2월 점도표보다 금리 경로의 확률분포가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다. <2면에 계속>

/김주형 기자 gh4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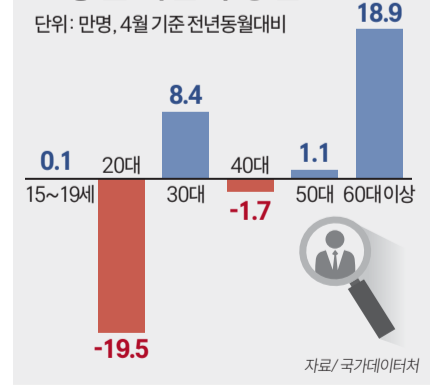


metro

연령대별은 60세이상(18만9000명), 30대(8만4000명), 50대(1만1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었다. 반면 20대(-19만5000명)에서는 취업자가 크게 줄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수는 19만4000명 줄며 4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4월 전체 실업자 수는 85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2000명 감소했다. 실업률은 2.9%로 동



### 메트로 한줄뉴스



- ▲李대통령, 미중 '사전협의' 앞두고 베스트·허리 평 연쇄접견 /사진 뉴시스
- ▲靑, 사이버안보 현안점검회의... '미토스發 보안 우려' 대응

- ▲與, '메가특구' 공약 발표... "지역서 국가 전략 산업 육성"
- ▲정원오 "소득 없는 1주택자 재산세 한시 감면"... 공약 발표

- ▲오세훈 "소상공인이 서울 경제 허리"... 정책금융 지원 공약
- ▲金총리 "삼성전자, 파업하지 않게 노사대화 지원"